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935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현대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은 경

현대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연구

The effective secondary music class study using contemporary music pedagogies.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은 경

현대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연구

지도교수 서 영 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음악교육) 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은 경

이은경의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현대 음악 교수법 ····· 4

제1절 달크로즈 음악 교수법 ····· 4

제2절 코다이 음악 교수법 ····· 12

제3절 오르프 음악 교수법 ····· 21

제4절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교수법 비교 ····· 32

제*3*장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설계 및 수업지도안 ····· 34

제1절 효과적인 음악수업 설계 ····· 34

제2절 현대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 36

제*4*장 결론 ····· 46

참고문헌 ····· 48

표 목 차

<표 1> 달크로즈의 리듬 지도 요소 ····· 8
<표 2> 코다이의 리듬 계명 읽기 ····· 14
<표 3> 코다이의 손 기호 ····· 15
<표 4> 펜타토닉 음계 ····· 24
<표 5>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공통점 ····· 32
<표 6>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차이점 ····· 33
<표 7> 달크로즈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 37
<표 8> 코다이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 40
<표 9>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1 ····· 42
<표 10>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2 ····· 44

그 림 목 차

[그림 1] 코다이의 올림표(♯)가 붙은 이동도법 계이름 ····· 17
[그림 2] 코다이의 내림표(♭)가 붙은 이동도법 계이름 ····· 17
[그림 3] 코다이의 신체 기호 ····· 18
[그림 4] 코다이의 날으는 음표 ····· 18
[그림 5] 코다이의 손가락 기호 ····· 19
[그림 6] 음계사다리1 ····· 20
[그림 7] 음계사다리2 ····· 20
[그림 8] 음계사다리3 ····· 20
[그림 9] 펜타토닉 음계 ····· 24
[그림 10] 단순 보르둔 ····· 25
[그림 11] 말하기 지도 예 1 ····· 26
[그림 12] 말하기 지도 예 2 ····· 26
[그림 13] 말하기 지도 예 3 ····· 27
[그림 14] 노래 부르기 지도 예 ····· 28
[그림 15] 신체 동작 지도 예 ····· 29
[그림 16] 오르프 악기 ····· 30
[그림 17] 오르프 기악 합주 지도 예 ····· 31

ABSTRACT

The effective secondary music class study using contemporary music pedagogies.

Eun-kyung Lee
Advisor : Prof. Young-hwa Seo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increasing social problems in modern society, music education has been expected more important way to solve those problems. But as a matter of fact, music itself has gone far from our daily life. To improve this paradox, we have to do something in reality.

This study is about to understand what Dalcroze, Orff, Codaly music teaching methods are and how to apply their methods for improving music instruction ways in the secondary school.

Dalcroze, Orff, Codaly's primary modern music teaching-learning teaching methods-teaching methods for music have many good points of view. Their methods can help to develop students' musical talent, get stutents' learning motivation.

I have made effective teaching plans for music class. The teaching plans are singing teaching applied Dalcroze, Orff, Codaly's music teaching methods each by each. I think they are good methods for making a sense of sound and growing physically and intelligently.

Finally I expect that many students will have more interest in learning and enjoying music class and music itself.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IT 산업은 실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1] 수많은 기술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가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도 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가치를 찾지 못하고 고립되어 생활하게 되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2]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 그리고 한 민족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생들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3] 발병률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증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며, 어느 누구의 개성도 수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화이다. 이러한 음악의 장점은 이 현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제로써 그리고 몰 개성화된 개인의 고고한 감성과 '자아존중감'(Self-respection)을 회복하게 하는 동반자로써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이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촉매제로써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 현장은 전 근대적인 주입식 이론 교육, 시간 때우기 식의 안일한 감상 시간 그리고 평가 위주의 가창 및 기악 수업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대 음악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측면들은 음악의 전체적인 직접 체험과 심미적

---

1) 강인애, 『디지털 시대의 학습 테크놀로지』(서울 : 문음사, 2006), p.41.
2) 소미화, "현대사회의 소외로 인한 주체성 상실로서의 자해"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2002), pp.3-12.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란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로 주의력결핍, 충동성, 과잉행동이 주요한 증상인 소아정신과 질환의 하나이다.

경험의 확장을 통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 고유의 민족 음악과 세계 음악 문화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효과적이고 동시에 창의적인 새로운 음악 교수법의 활발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4)]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 스위스),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헝가리) 그리고 오르프(Carl Orff, 1895-1992, 독일)의 음악 교수법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를 중등 음악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달크로즈, 코다이 그리고 오르프 교수법은 신체 표현을 통한 통합적인 음악의 체험과 음악 지식의 습득과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적 능력 신장과 전통 음악과 생활 속의 음악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교사의 의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충실한 음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조차 풍요로운 음악의 내면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된 후에 음악과 함께하는 정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널리 알려진 현대 음악 교수법과 중학교 음악수업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 음악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 문화의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대 음악교수법을 검토한 후 실제 중등 음악수업에 적용한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악수업 형태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음악교수법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

4) 김용희,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9(2002), pp.398-412.

의 음악교육에 대한 각각의 철학과 구체적인 음악 교수법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다.

둘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으로 한정하여 비교한다.

셋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을 중학교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수업지도안을 고안한다.

넷째, 중학교 1학년 음악 중 한 가지 제재곡을 선택한 후 현대 음악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업지도안을 만든다.

제2장 현대의 음악 교수법

제1절 달크로즈 음악 교수법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 스위스)[5]는 스위스와 비엔나 콘서바토리(Conservatory, 연주 실기나 작곡, 음악이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를 직접 세우기도 한 스위스 출신의 작곡자이다. 그는 페스탈로치(Pestalozzi) 철학을 전수받은 음악교사였던 어머니 쥴리(Julli)로부터 음악교육을 받았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의 비엔나에서 오페라, 발레, 연극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을 접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작곡가로서도 6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페스탈로치 이후의 현대음악교육의 창시자로 유리드믹스의 기초를 마련했다. 스위스 제네바 콘서바토리(Geneva Conservatory)의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경험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달크로즈만의 새로운 음악 교수법을 완성하였다. 그가 발견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은 아래의 4가지이다.[6]

첫째, 학생들이 테크닉 적으로는 훌륭하게 연주를 하나 자신의 감정을 악기를 통해 전달하는 음악적인 표현에는 미숙하다.

둘째, 학생들이 화성학 시간에 화성을 수확 공식 다루듯이 외우고 그 소리는 듣지 못한다.

셋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멜로디조차 만들지 못한다.

넷째, 학생들이 리듬감이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아 연주 시 리듬감 표현이 서투르다.

달크로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음악교육 방안으로 유리드믹스, 솔페이지, 즉흥연주를 연계한 새로운 음악 교수법을 창안했다. 이는 음악교

---

5) 한세대학교 달크로즈 과정. http://www.dalcroze.co.kr/dalcroze/main.php. 2008년 7월 23일 검색.
6) 홍성애, “현대 음악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7), pp.24-25.

육사 측면에서는 현대음악교육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현대에도 음악, 무용, 연극 등 타 문화 영역에서 활용되고 또, 신체장애나 정서장애 아동의 음악적 치료[7]에도 널리 활용되어 그 가치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달크로즈 음악교육 철학

달크로즈는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나며 교육은 자기 의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시키는 적극적인 힘이며,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했다.[8] 이러한 달크로즈의 주장은 달크로즈의 음악교육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신체활동의 결합으로 요약되는 달크로즈의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은 그가 새로운 음악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달크로즈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다가, 학생들의 생활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학생들은 정해진 빠르기로 정확하게 연주하진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정확한 빠르기로 걷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음악 교수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시창과 청음 교육으로 길러지지 않는 음악에 대한 감수성과 사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음악적 청감(聽感)과 신체적 반응이 결합되면 놀랄만한 음악적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청각, 시각, 촉각 등과, 지식과 사고력,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들을 조화롭게 훈련시키는 것이 음악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먼저 유리드믹스 지도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솔페이지와 즉흥연주를 추가로 고안하였다. 달크로즈의 음악 교수법으로 대표되는 유리드믹스, 솔페이지, 즉흥연주에 담겨진 달크로즈의 음악교육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은 지적이기 이전에 감각적이어야 한다.

---

7) 정현주,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8)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서울: 교육과학사, 2005), p.198.

둘째, 신체의 모든 부분이 감각 기관이므로 이들의 발달을 꾀함이 중요하며 음악적 생각이나 느낌은 신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듣기 훈련이 모든 음악 학습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리듬 경험과 청각 훈련이 잘 이루어진 후 악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아들의 개개인의 특성과 독창성은 극도로 중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리듬, 셈여림, 박자, 속도, 음의 고저, 음의 구성 등 음악의 본질 개념에 대한 가르침과 신체를 통한 이들의 이해 표현의 경험이 중시되어야 한다.[9]

2. 달크로즈 음악 교수법

가. 유리드믹스 (Eurhythmics)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사전적으로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eu)와 리듬(rhythm)의 합성어이다.[10] 유리드믹스는 음악적 리듬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음악 학습의 방법으로서 음악에 맞는 리듬동작을 배우는 것이다.

달크로즈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여긴 리듬 교육 유리드믹스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어야 한다'와 '음악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행 요건을 가지고 있다.[11] 즉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악기인 신체에 좋은 리듬이 베이게 하는 음악교육 방법이 유리드믹스인 것이다. 달크로즈는 이러한 좋은 리듬의 체득을 위해 4가지 측면에서 목적을 분류하고, 학습해야 할 리듬 요소 34항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1) 유리드믹스 교육의 목적[12]

유리드믹스 교육의 목적은 정신적인(mental) 측면, 신체적인(physical) 측면, 감성

9) 안재신, 『유아음악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p.48.
10) 윤영랑, "달크로즈 교육방법을 토대로 한 음악극 학습지도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p.7.
11) 권덕원 외, 전계서, p.200.
12) 김영이, "달크로즈와 오르프의 리듬지도 방법의 효과 비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1), p.15.

적인(emotional)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유리드믹스 교육 목적

인식력, 집중력, 통합 반응력, 뉘앙스 감지 및 자기 표현력 등을 기른다.

(나) 신체적인 면에서의 유리드믹스 교육 목적

시간, 공간, 역동성, 무게, 균형 등의 법칙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용이성, 움직임의 정확성, 움직임을 통한 자기 표현력을 기른다.

(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유리드믹스 교육 목적

연주, 분석, 독보, 기보, 즉흥 연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청감각과 반응력 즉 신속 정확하게 청취하고 그 음향에 대하여 개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13)]

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좋은 리듬이 되기 위한 요소 34개를 아래의 <표 1>과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표 1> 달크로즈의 리듬 지도 요소

13) 권덕원 외, 전계서, pp.204-205.

1	시간(time), 공간(space), 힘(energy), 무게(weight), 균형(balance), 유동성(plasticity)의 상호 연관 관계		
2	박(beat)의 성질 : crusic[14], metacrusic[15], anacrusic[16] beat의 이해		
3	템포(tempo)	*4*	점차적으로 변하는 템포 (accelerando/ritardando)
5	강약(dynamics)	*6*	점차적으로 변하는 강약의 변화 (crescendo/diminuendo)
7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8*	액센트 (metric, agogic, dynamic, tonic) (ornamental, harmoic accents)
9	박자	*10*	쉼표
11	음의 길이	*12*	음의 분할(subdivision)
13	패턴(pattern)	*14*	내재된 박(intrinsic beat)
15	프레이즈(phrase)	*16*	단선율 형식 (동기, 악절:주제와 변주:가요형식)
17	축소(diminution)	*18*	확대(augmentation)
19	리드믹 대위법	*20*	당김음(syncopation)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	*22*	대위적 형식
23	카논	*24*	푸가
25	부가 리듬	*26*	혼합 마디(unequal)
27	혼합 박(unequal Beat)	*28*	혼합 미디와 혼합박 (unequal Measure & unequal beat)
29	복합 박자(polymeters)	*30*	복합 리듬(polyrhythm)
31	헤미 올라(hemiola)	*32*	리듬적 변화(rhythmic transformation)
33	12음 나누기(divisoins of twelve)	*34*	루바토(rubato)

(3) 유리드믹스의 학습 순서

(가) 음악에 따라 속도 표현하기

교사의 즉흥연주에 따라 박자를 인식하며 행진한다. 양팔은 지휘하듯 사용하며 다리의 걸음걸이는 음표의 길이(note value)를 나타낸다. 4분음표(1박자)가 정상적인 걸음걸이라면 8분음표는 달릴 때의 좁은 폭 걸음걸이, 16분음표는 달리기, 점8분음표와 16분음표는 깡총 뛰기 등을 표현한다.

(나) 음악에 따라 음색 표현하기

음의 높낮이, 강약, 스타카토, 레가토 등의 음악요소를 동작과 함께 목소리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점점 크게 -> 목소리도 점점 크게, 음악을 점점 작게 -> 목소리도 점점 작게, 또는 목소리가 높으면 두 팔을 위로 들고 목소리가 낮으면 두 팔을 아래로 내린다. 즉, 음악의 액센트에 따라 언어의 강세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악기연주 표현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다) 박자에 따라 팔로 표현하기

박자를 지휘할 때 팔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인식한 박자를 팔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4분의 4박자의 경우엔 첫 박은 아래로 둘째 박은 왼쪽으로 셋째 박은 오른쪽으로 마지막 박은 위로 움직여서 박을 나타낸다.

(라) 작은악절(Phrase)[17] 표현하기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를 때도 새로운 악절이 시작될 때마다 숨을 쉬게 되는데 이것을 악절의 시작으로 보고 새로운 동작을 표현하게 한다. 소리를 주의 깊게 듣다가 악절의 시작에 따라 오른팔과 왼팔을 바꿔 사용하기도 하고 움직임의 방향을 전환하여 동작 표현을 시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즉흥표현에 좋은 도움이 된다.

---

14) 크루시스(crusis)란 4분의 4박자에서 힘이 아래로 향하고 숨을 내쉬며 긴장이 해소되는 첫째 박을 의미한다.

15) 메타 크루시스(meta crusic)란 첫 번째 박의 반동에 의해 힘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박으로, 4분의 4박자 곡에서는 둘째, 셋째 박이다.

16) 아나 크루시스(anacrusic)이란 4분의 4박자에서 힘이 위로 향하고, 첫 번째 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숨을 들이쉬면서 힘이 모아지는 넷째 박을 의미한다.

17) 작은악절이란 '소악절'(小樂節)이라고도 한다. 2개의 동기가 모여서 4마디가 되는데 2개의 동기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있다. 작은악절을 이루는 가락은 그 표현이 불완전하지만 음악으로서의 최소한의 감정과 의미를 나타내며 대개 가사의 1행에 해당된다.

(마) 리듬 표현하기

간단한 선율 연주를 듣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음의 길이와 박자, 빠르기 변화 등을 기억하여 신체 동작으로 재현한다. 이 활동은 청음, 리듬분석, 집중력, 기억력 등 중요한 요소의 결합으로 음감의 체득을 위한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다.

(바) 독자성 유지하기

서로 다른 리듬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활동으로 폴리리듬(Polyrhythm)[18]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4/4 박으로 걸으면서 오른손으로 6/8박자를 젓는다거나, 오른팔로는 3/4 박자 젓고 동시에 왼손은 4/4박자를 젓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계속적인 훈련은 근육과 지적인 의식 속에서 두 가지 리듬의 맥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 계이름으로 부르기(솔페이지)

달크로즈의 솔페이지는 음계와 선법, 음정, 선율, 화음, 대위법, 즉흥 노래 표현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계이름으로 부르기를 통해 청음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계이름으로 부르기는 음들의 높이를 구분하고 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힘을 기르고 이를 신체적 동작과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악보 속에서 리듬꼴과 선율, 음정, 프레이즈, 셈여림표 등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음향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바로 즉각적인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기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손 기호를 활용해 음의 높고 낮음을 중심으로 지도하다 계이름을 지도하도록 하는 교수법을 고안하였다.

(1) 솔페이지의 실제

(가) 악보읽기 훈련으로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몸의 동작으로 높은음과 낮은음을 표현한다.

(나) 고정 '도' 법을 통해 절대음감을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다) 독보력을 위하여 단계적인 악보읽기 훈련을 시도한다.

첫째, 한 줄 악보를 사용하여 높고 낮음을 익힌다.

---

18) '폴리리듬'이란 여러 개의 다른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이다.

둘째, 두 줄 악보를 사용하여 줄, 칸 개념을 익힌다.
셋째, 익숙해지면 세 줄, 네 줄, 다섯 줄 악보를 점차적으로 사용하여 익힌다.
넷째, 가온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를 각각 사용하여 악보를 익힌다
다섯째, 악보에 의해 음계를 익힌다.
여섯째, 악보를 보며 손짓, 발짓, 몸짓 등으로 리듬을 표현한다.
일곱째, 음계에 여러 가지 리듬과 선율을 만들고 시창한다.

다. 즉흥연주 (Improvisation)

즉흥연주는 통합적인 음악행위로 모든 음악 요소들 즉, 박자, 강약 , 속도 ,음정, 화음 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즉흥연주에서는 연주뿐만 아니라 즉흥 표정, 즉흥 목소리, 즉흥 몸짓 등을 포함하며 움직임, 말, 이야기, 노래,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피아노 등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즉흥연주 지도에서는 피아노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피아노는 화성과 선율을 동시에 소리 낼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가장 자유롭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흥연주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충동을 이끌어냄으로 음악 창작의 자료를 마련해 주고 자연스럽게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사는 즉흥연주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내면을 음악적 표현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흥연주는 음악학습에 있어 창의적 표현능력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달크로즈 즉흥 연주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을 바꾼다.
둘째, 같은 리듬에 멜로디를 변화시킨다.
셋째, 음역을 바꾼다.
넷째, 원래의 멜로디에 음을 더한다.
다섯째, 아티큘레이션을 바꾼다.
여섯째, 화성 진행을 바꾼다.
일곱째, 템포를 변화시킨다.

여덟째, 음계를 변화시킨다.
아홉째, 조성을 변화시킨다.
열째, 악상을 변화시킨다.
열한째, 하나의 선율에 장식음 또는 효과음을 사용한다.

제2절 코다이 음악 교수법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헝가리)는 자신의 조국 헝가리의 음악 수준이 점차 퇴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작곡가이자 민요 연구가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학교 음악교육의 재정비, 좋은 음악 교재와 교육 방법의 고안, 수준 높은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동시대의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수용과 유럽의 좋은 음악적인 전통을 종합하였다. 코다이는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는데, 코다이의 생각을 받는 제자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코다이 음악 교수법이 구체화되고,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코다이의 음악교육의 이상은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코다이는 어린이들의 타고난 음악성 계발, 음악적 언어 이해 능력의 향상, 흐름 결 및 가락의 창작, 민요나 예술 가곡을 통한 음악적 문화 유산 이해, 음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이해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 표현을 중점을 두고 어린이들을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19]

1. 코다이 음악교육 철학

코다이는 모든 사람의 인격 형성에 음악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모든 어린이들이 음악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즉, 모든 사람이 참다운 음악 지식과 음악 자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음악교육은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코다이의 음악

19) 조홍기, 『코다이 음악교육』(서울: 세광출판사, 2004), pp.54-55.

교육 철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음악적 모국어인 민요를 통해 음악을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노래 부르기는 음악 교육의 가장 기본이다.

셋째, 모든 사람이 음악을 쓰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솔페이지가 중요하다.

넷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신체를 통한 음악 활동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미있고 즐거운 음악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

여덟째, 음악의 조기교육, 지속적인 음악교육, 질 높은 교사가 중요하다.

이렇듯 코다이는 광범위하고 세심한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헝가리의 음악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주축을 이루었다.

2. 코다이 음악 교수법

코다이 음악 교수법은 외국의 교수학습 방법들을 재정립하여 새롭고 유용한 지도법을 개발하였는데, 음악 교수법 중심을 모국어의 문해 능력에 해당하는 독보력 신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독보력의 신장을 통해 풍요로운 음악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20]

가. 리듬읽기(Rhythm syllables)

코다이는 리듬을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프랑스의 슈베(Emile Joseph Cheve, 1804-1864)가 만든 리듬읽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리듬에 노랫말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첫 문자나 첫 소리만을 활용해 리듬을 지도했다. 아래의 <표 2>는 코다이가 리듬 지도를 위해 활용한 리듬 이름 읽기이다. 코다이가 발전시킨 리듬읽기 지도 방법은 음악을 배우는 기초단계에서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 조홍기, 상계서, p.55.

<표 2> 코다이의 리듬 계명 읽기

홑박자계에서 리듬 계명 읽기

Kodály식 기보	전통적 기보	음악 음절	Kodály식 기보	전통적 기보	음악 음절
		따			리 팀
		띠 띠			띠따띠
		트리올라			리띠리
		띠리리리			따 아
		띠띠리			따아아아
		띠리띠			쉼
		팀 리			쉬

겹박자계에서 리듬 계명 읽기

Kodály식 기보	전통적 기보	음악 음절
		따 이 띠
		띠 띠 띠
		따 띠
		띠 따

나. 손 기호(Hand Sign)

손의 높이와 모양을 통하여 공간에 음높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손 기호(Hand Sign)는 초보자에게 음 높이를 가르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려운 음정 지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손 기호는 영국의 커웬(John Spencer Curwen, 1816-1880)에 의해 고안되었다. 커웬이 처음 고안한 손 기호는 헝가리에서 사용한 것과는 조금 다르며 헝가리 방식의 경우 임시표, 조바꿈, 화음을 두 손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 코다이의 손 기호

do(도) 으뜸음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고 가슴 높이로 옆으로 향하게 함.	
re(레) 으뜸음에서 위로 향하는 첫 음으로 손바닥을 펴서 위로 비스듬히 향하게 한다.	
me(미) '레'의 손끝 높이에서 옆으로 평행이 되게 한다.	
fa(파) 반음. 두 음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항상 '파'음이 '미'로 향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so(솔) '파'보다 위에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보인다. 코 높이 정도이다.	
la(라) 가장 표시하기 어렵다. 손목을 구부려서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해서 보이며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향하게 한다.	
ti(티) '도-시'사이의 반음 '시'음은 '도'를 향해 해결되므로 검지손가락을 약간 비스듬히 위로 향하게 한다.	

(1) 손 기호 적용의 좋은 점

첫째, 공간상에 음높이와 계이름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둘째, 노래 부르는 음높이와 이름에 대한 음정 개념이 형성된다.

셋째, 각 음마다 기능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넷째, 마음속으로 노래하고 음을 듣는 내청 훈련이 된다.

다섯째, 첫 음을 잡아주는 악기 없이도 음을 끌어낼 수 있다.

여섯째, 다성부 훈련, 2성부 훈련, 인토네이션 훈련에 좋다.

일곱째, 초보자부터 고급 수준까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여덟째, 대뇌 기능과 소뇌기능의 동시 작용으로 시창과 청음 연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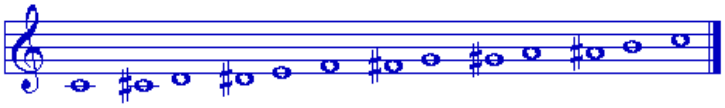
다. 이동도법

이동도법이란. 움직이는 '도', 즉 조가 이동할 때마다 으뜸음 '도'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계이름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코다이의 음악교수법이 정착된 헝가리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도'를 C, F, G의 위치로만 사용되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노래 부르기 좋은 음역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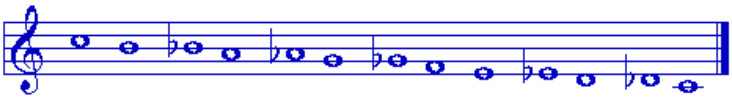
이동도법은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에겐 잠시 가르치고 마는데,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높은음자리표 상의 도의 위치와 낮은음자리표 상의 도의 위치를 동시에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도법의 장점은 정확하게 노래 부르기에 도움을 주어, 음악적 체계나 조성, 형식 등을 이해하게 하여 음악 전체를 조망하게 해준다는 것과 시창과 청음 지도에 음을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다른 파트의 화성을 느끼며 노래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올림표(♯)가 붙은 경우의 이동도법과 내림표(♭)가 붙은 경우의 이동도법의 계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코다이의 올림표(♯)가 붙은 이동도법 계이름



[그림 2] 코다이의 내림표(♭)가 붙은 이동도법 계이름

시창하는 방법 가운데 이동도법에 따른 계이름 부르기의 유용성을 강조한 코다이는 11세기 수도사인 귀도의 작품에서 비롯된 6개의 계이름을 사용하여 그 머리글자로 음을 표현한다. 또한 모든 반음 올림음들은 -e, 그리고 반음 내림음들은 -a로 나타낸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Sol-fa로 기보된 반음계의 상행음계와 하행음계의 계이름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또한 코다이 교수법에서는 계이름의 사용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계이름의 머리글자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옥타브 위의 음들은 머리글자의 오른쪽 위에 d′를 아래음은 오른쪽 아래 d,를 표시한다. 코다이 교수법 이동도법의 시창법은 귀도의 계이름과 커웬의 ‘토닉 솔파법’, 그리고 슈베의 ‘숫자보’, 훈데거의 ‘Tonic Do법’ 등이 수용되어 재정립된 것으로 조옮김이나 조바꿈의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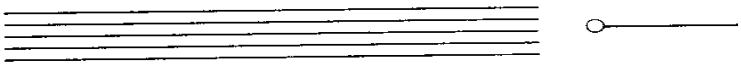
라. 신체 기호

유아기 아동들의 경우에는 독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교사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여기에 아동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신체 움직임이나 신체 표현을 더해 음악을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계명창 학습의 예비 학습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신체 기호 그림이다.

[그림 3] 코다이의 신체 기호

마. 날으는 음표(Flying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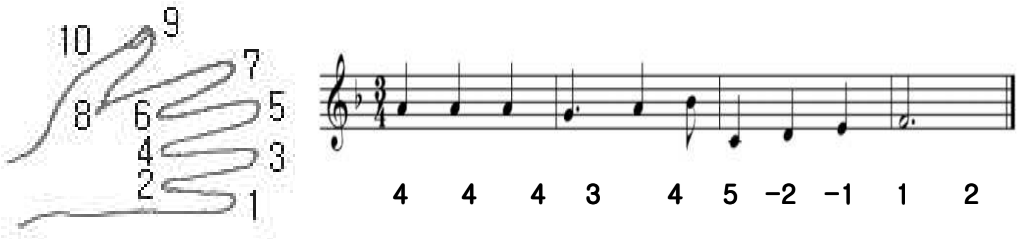
날으는 음표는 프랑스의 슈베가 고안해 낸 교육 가운데 한 가지이다. 날으는 음표는 지시봉과 같이 긴 막대기 끝에 음표의 머리를 고정시켜 놓고 오선 위에서 막대기를 움직여 음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날으는 음표는 초보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도법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하며, 교사가 5선보 위에 어떤 음을 지시할 때, 가락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는 날으는 음표와 오선보이다.



[그림 4] 코다이의 날으는 음표

바. 손가락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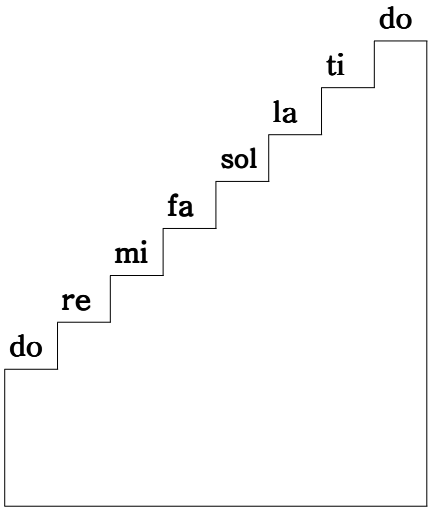
코다이는 손을 손 기호뿐만 아니라 고정도법에 의한 정확한 음 높이를 소리로 나타나게 가르칠 때도 사용한다. 교사는 왼손 엄지를 위로 가게 하여 펼치고, 다섯 손가락이 5선으로 간주되어 오른손 검지로 왼손을 가리키면 5선상의 음이 되는 것이다. [그림 5]는 손가락 기호를 활용하여 독일 민요 '음악은 영원히' 중 일부를 지도하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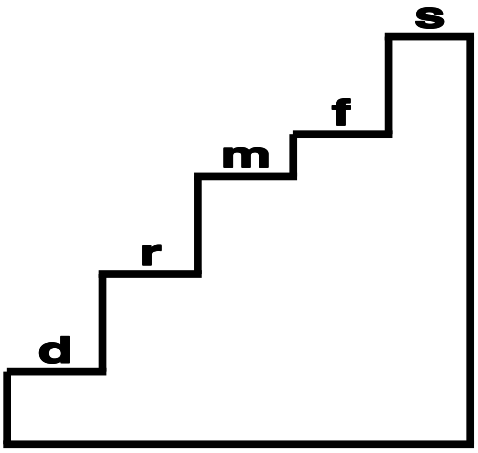
[그림 5] 코다이의 손가락 기호

사. 음 사다리, 음계 고리, 음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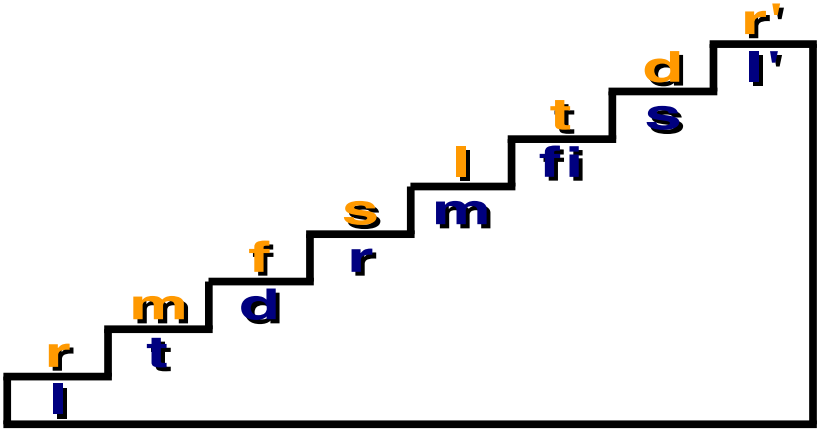
코다이 솔페이지에서는 계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3연음계, 4연음계, 5연음계, 5음음계, 선법 등 차례대로 가르친다. 이때 음과 음 사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2도 음정은 연음계로, 긴 2도 음정은 선법으로, 3도 음정은 5음 음계나 화음으로, 4도 음정은 2전위화음으로 5도 음정은 화음으로 6도 음정은 1전위화음으로 7도 음정은 7화음으로 가르치는데 음정의 간격을 소리 내고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계이름을 지도할 때, 음 사다리와 음계 고리 그리고 음 기둥을 이용하여 음계 구성의 상대적 개념을 심화하고 기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다양한 음계사다리의 활용을 보여준다.



[그림 6] 음계사다리1



[그림 7] 음계사다리2



[그림 8] 음계사다리3

제3절 오르프 음악 교수법

오르프(Carl Orff, 1895-1992, 독일)의 음악교육 이념은 "기초적인 음악"(Elementary Music)이라는 기본 개념을 음악 지도법에 반영시켰는데, 이는 음악적인 기초 기능과 지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연주, 창작, 감상 그리고 음악의 생활화와 같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21] 이 개념에서 음악이란 음악 자체만이 아니라 동작과 말이 수반되며,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이다.

오르프가 주장한 기초 음악은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름 부르기, 라임(rhyme), 속담 같은 것은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무릎 치기와 같은 동작을 통하여 리듬감이 구체화 된 것이다.

1. 오르프 음악교육 철학

오르프는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음악미의 감득과 자신의 표현 능력 배양에 두어야 한다."[22]고 주장하는데, 그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만연되는 말, 동작, 노래 등이 수반되는 기초적인 음악의 확립을 중시하여 가능한 많은 음악적 경험을 체득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본질을 맛보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남긴 4편의 논문과 강연내용 그리고 자전적인 책 속을 통해 나타난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3]

첫째, 음악은 나이와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둘째, 음악은 직접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셋째, 음악의 체험은 어릴 때 시작해야 하며, 놀이 음악으로부터 시작해 성장 단계에 따라 점차 복잡해져야 한다.

넷째, 음악적 체험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음악은 본래 기초적인 것이어야 한다.

---

21) 조효임 외,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999), p.14.
22) 오숙경, "오르프와 코다이 음악교육 이념의 비교 고찰," 『음악교육연구』, 1(1973), p.6.
23) 송상경, "Carl Orff의 Schulwerk fur Kinder에 관한 고찰"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7), p.16.

여섯째, 음악은 놀이와 대화, 노래, 신체 동작, 악기 연주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총체적 체험이어야 한다.

일곱째, 리듬과 멜로디가 음악의 출발점이다.

여덟째, 비음악적인 어린이는 없다.

아홉째, 제한된 매개에서부터 어린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열째, 모든 자료는 어린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사용되어야 한다.

2. 오르프 음악 교수법

가. 오스티나토(Ostinato)

오스티나토는 오르프 교수법의 중요한 기본적 원리로서 악곡전체나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정한 음형을 말한다. 이러한 반복패턴 즉, 오스티나토는 범세계적인 것으로서 여러 문화권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 그 외 타 지역의 민속음악이나 대중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음악의 어떤 요소도 오스티나토로 만들어 질 수 있고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하나의 멜로디나 화음진행, 리듬, 신체표현 등에서 나타나며 또한 이러한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오스티나토는 어린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초기단계에서도 앙상블을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오르프 교수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들의 음악공부의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 원리인 오스티나토와 친밀해질 수 있다. 오스티나토를 청각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음으로써 어린이들은 악기앙상블에서 한 성부에 대한 다른 성부와의 관계 즉, 선율과 반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오스티나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체표현 오스티나토

신체표현 오스티나토 패턴들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유로운 패턴으로 쓰이며, 독주와 반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2) 말하기 오스티나토

말하기는 보통 몇 개의 반주 오스티나토가 겹쳐 쓰이면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리듬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어린이들이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억양과 가사에 어울리는 음조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기 오스티나토의 가사는 리듬의 독립성을 강화 시킨다. 다른 성부와의 리듬 앙상블이 잘 이루어져야만 만족할 만한 음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체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파트를 연주하면 더욱 재미있다.

(3) 노래 오스티나토

노래 오스티나토는 어린이들에게 성악적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최초의 과정이다. 두 성부(멜로디성부와 오스티나토 성부)가 같은 음으로 시작하고 오스티나토의 길이가 멜로디의 프레이즈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노래 오스티나토는 멜로디와는 구별되는 노래 오스티나토만의 리듬적, 선율적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4) 악기 오스티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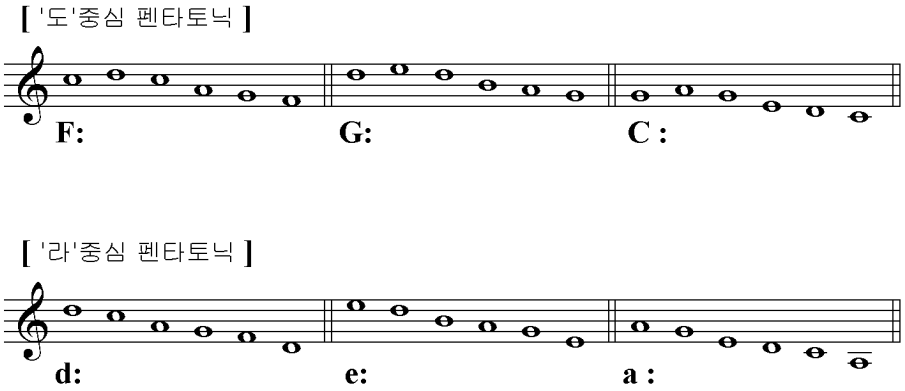
악기 오스티나토 반주는 신체 타악기. 무선율 타악기. 선율 타악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악기 오스티나토는 말하기, 노래의 가사, 리듬 프레이즈, 또는 기악 선율에 붙여질 수 있고 즉흥적으로 창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나. 펜타토닉(Pentatonic)

펜타토닉 음계는 도, 레, 미, 솔, 라 로 된 5음 음계를 말한다. 펜타토닉은 반음이 없는 음계로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어린이들이 반주하기 쉽고, 노래하기 쉬우며 즉흥연주하기가 쉽다. 여러 가지 펜타토닉 음계는 아래의 <표 4>와 같으며, 특히 [그림 9]의 '도(중심음)-펜타토닉 음계'와 '라(중심음)-펜타토닉 음계'는 오르프 수업에서 자주 쓰인다.

<표 4> 펜타토닉 음계

	‘도(중심음)-펜타토닉 음계’		‘라(중심음)-펜타토닉 음계’
C조	도-레-미-솔-라	a조	라-도-레-미-솔
F조	파-솔-라-도-레	d조	레-파-솔-라-도
G조	솔-라-시-레-미	e조	미-솔-라-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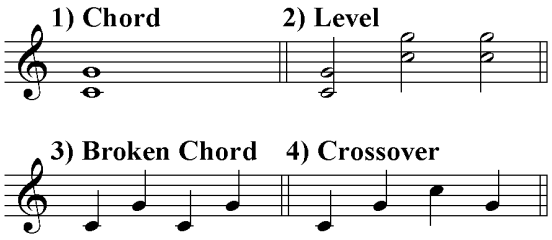


[그림 9] 펜타토닉 음계

다. 보르둔(Bordun)

보르둔은 그 조(조성)의 근음과 5음에 기초한 반주로 선율 아래의 저음부 반주로 쓰인다. 음색이 맑고 안정적이며 어린이들이 가장 연주하기 쉬운 반주 형태이기 때문에 오르프 악기 앙상블의 반주 형태로 많이 쓰인다.

다음은 단순 보르둔(Simple Bordun)의 네 가지 형태이다.



[그림 10] 단순 보르둔

(1) 코드 보르둔(Chord Bordun)

같은 악기로 1도(도)와 5도(솔)를 연주하며 두음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Bass 파트에서 연주되며 간혹 Alto파트에서 연주되기도 한다.

(2) 레벨 보르둔(Level Bordun)

둘 또는 그 이상의 성부에서 연차적(순차적)으로 연주되는 코드 보르둔(Chord Bordun)이다.

(3) 분산적 보르둔(Broken Bordun)

1도와 5도 음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강박에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연주되는 것이다.

(4) 크로스오버 보르둔(Crossover Bordun)

이것은 레벨 보르둔(Level Bordun)과 코드 보르둔(Chord Bordun)이 혼합된 형태의 반주로 각각의 강박에 근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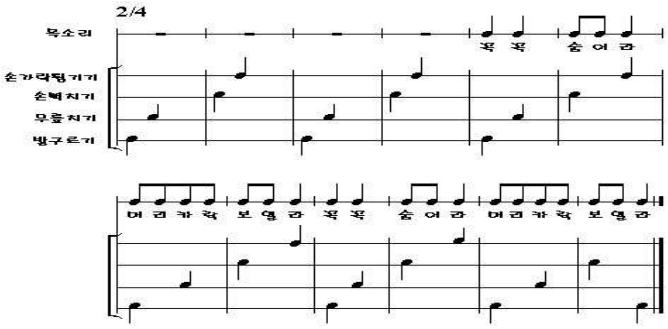
3.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매체들

오르프는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말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 동작, 즉흥 연주 그리고 오르프 악기를 사용하는 기악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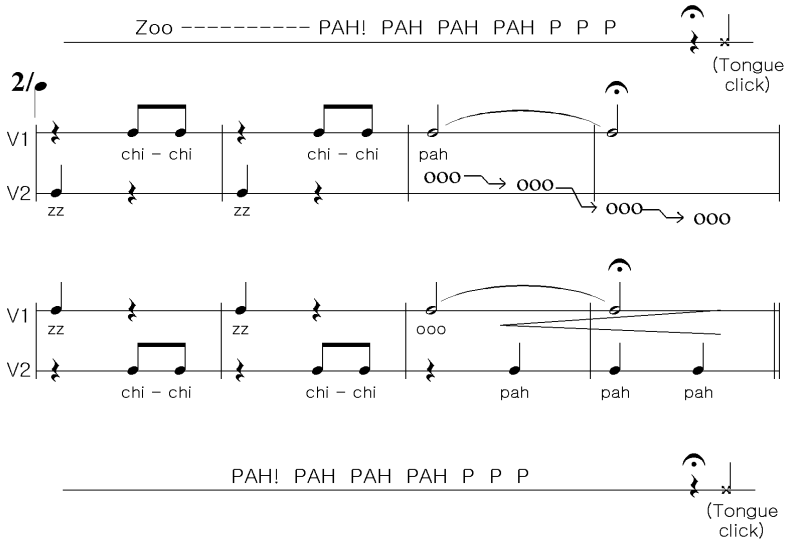
가. 말하기(speech)

말의 형태에서 리듬의 형태로 리듬의 형태에서 노래로 발전해 나간다. 말하기를 통하여 손뼉 치기, 무릎 치기, 발 구르기 등으로 리듬을 표현하고 또 악기로 리듬을 연주하는 자연스런 음악적인 체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르프는 유아들이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이나 친구들의 이름, 주위 사물들의 이름들을 이용해 리듬을 훈련을 하거나 라임(rhyme)을 통하여 박자, 강세, 여린내기, 레가토(legato), 스타카토(staccato), 악절 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 말의 리듬을 이용하여 음악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하고 발 구르기, 무릎 치기, 손뼉 치기, 손가락 튕기기 등의 신체 동작과 연결하였다.

[그림 11] 말하기 지도 예 1



[그림 12] 말하기 지도 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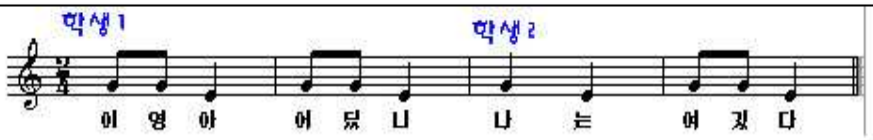


[그림 13] 말하기 지도 예 3

나.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관심과 존중을 배우는 것이다. 아동들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 발성과 억양 취급법을 배우게 된다. 노래 부르기 지도 과정은 하행하는 단 3도(솔-미)에서 시작하여 5음 음계(솔, 미, 라, 레, 도)를 완성하게 된다.

악보) 하행 단 3 도 노래 부르기의 예



--초기단계에는 흔히 교사와 어린이들, 또는 어린이들끼리 짧은 가락으로 서로 응답하며 노래하고, 교사의 노래를 모방하도록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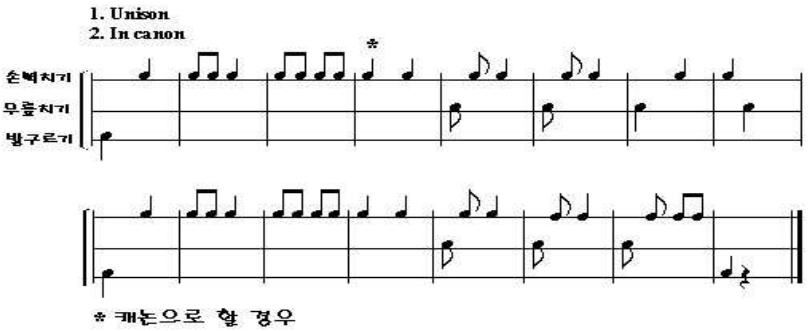
<솔>-<미> 두 음정을 익힌 다음에는 <라>가 추가되며, 차례로 <레>와 <도>가 사용된다. 5음계의 곡을 충분히 다룬 후 고학년에서 <파>와 <시>음이 포함된 7음계를 사용한다. 오르프는 **5음계(5개의 음 ---도.레.미.솔.라---로 구성된 음계)** 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온음계나 12음계가 처음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어렵고, 즉흥연주를 할 경우 창의적으로 하기보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선율을 모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5음계는 노래하기 쉬우며, 반음을 포함하지 않아서 어떻게 연주하던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즉흥연주 하기에 좋다.)

[그림 14] 노래 부르기 지도 예

다. 신체 동작(율동)

신체 동작은 기술과 음악의 요소 이해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박으로서의 리듬, 패턴, 박자, 빠르기의 개념 측면에 익숙해지도록 아동에게 도움을 준다. 신체동작은 특히 리듬 학습뿐만 아니라 셈여림과 빠르기를 학습하고, 음악에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그림 15] 신체 동작 지도 예

라. 즉흥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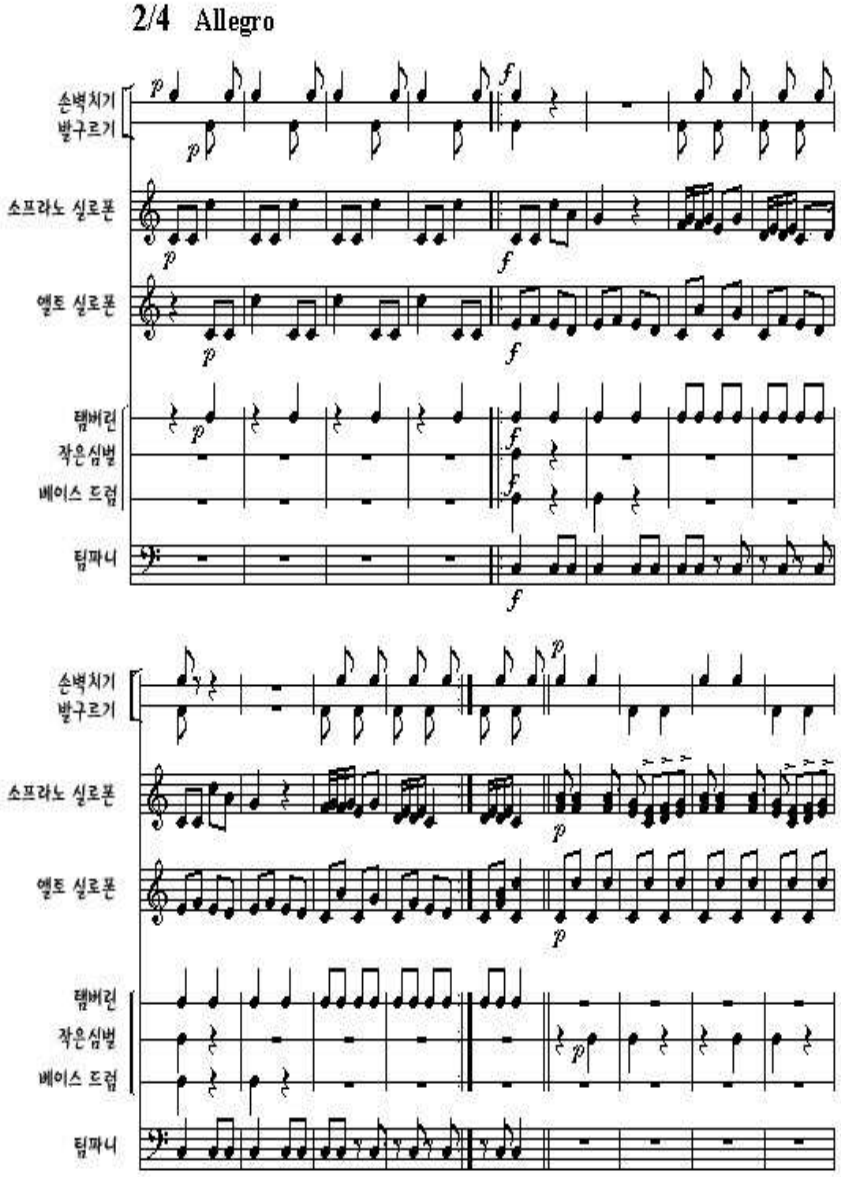
창조적 표현 능력 발달을 위한 즉흥 연주는 신체 동작, 몸으로 흐름결 치기, 말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 모든 즉흥적인 활동에서 활용된다. 오르프 음악 교수법에서의 즉흥 연주는 능숙한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 기악(오르프 악기 연주)

오르프는 교수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사용되어 지는데, 연주하기 간단한 타악기식 가락 악기가 주를 이룬다. 악기에는 건반 타악기(알토 실로폰, 베이스 실로폰, 알토 절금, 소프라노 절금, 소프라노 실로폰, 알토 종금, 소프라노 종금), 리코더, 현악기(기타, 첼로, Porta, 비올라, Da gamba), 리듬 타악기(팀파니, 큰북, 작은북, 탬버린, 손북, 사각 나무 흔들이, 비채, 띠 방울, 관 방울, 캐스터네츠)가 있다.

선율 타악기
소프라노 글로켄슈필
앨토 글로켄슈필
소프라노 실로폰
앨토 실로폰
베이스 실로폰
소프라노 메탈로폰
앨토 메탈로폰
베이스 메탈로폰
나무 울림 타악기 (Wood Percussion)
템플 블럭
귀로
우드 블럭
마라카스
클레이 보스
로그드럼
비브라 슬랩
라첫
카바사
금속 울림 타악기 (Metal Percussion)
트라이 앵글
핑거심벌
슬라이스벨
슬라이드 휘슬
아고고 벨
카우벨
손목방울
징글스틱
윈드차임
가죽 울림 타악기 (Skin Percussion)
핸드 드럼
템버린
봉고
콩가
패들 드럼
롤리팝 드럼
큰북
젬베이
팀파니
리 코 더
소프라니노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
앨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그림 16] 오르프 악기



[그림 17] 오르프 기악 합주 지도 예

제4절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교수법 비교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는 모두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의 토양 위에 자라난 현대 음악 교수법의 초석이다. 이들의 음악교육 철학과 음악 교수법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세계 음악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는 상호 유사하면서도 또 각자 개성 있는 음악 교수법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 이러한 교수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1.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의 공통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음악교육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음악교재와 민속 음악이라는 교육 내용을 활용하였다. 음악 지도에 있어서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는 공통적으로 암송창의 사용, 리듬 흉내, 노래 게임, 음악 형식, 화성 발전, 반복학습, 즉흥 연주, 강약 등을 중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조기 음악교육, 민속음악 활용, 음악의 생활화, 창의적 사고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세 사람의 음악 교수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공통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공통점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며, 기초적인 악기로 보았다.
강요적인 악기 활용이 없다.
조기 음악교육과 음악적 경험을 중시하였다.
음악교육에 신체를 활용하였다.
반복학습을 통한 훈련과 즉흥 연주를 통한 음악적 창의력 향상을 중시하였다.

모국의 민요를 음악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청음을 강조하였고, 음악 전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였다.

2.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의 차이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는 각각의 교수법은 그 이념적, 철학적 배경의 많은 공통점에도 개성 있는 차이점들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차이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 교수법의 차이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교수 과정의 중점	신체 리듬	독보력	리듬 흉내
악기 사용의 비중	작은 비중	작은 비중	큰 비중
음악 교수법의 목표	신체리듬, 청음, 시창 연습을 통해 사고를 끌어올리고 온몸의 감각을 활용한 창조	단계적 지도를 통한 독보력 신장	개인의 표현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즉흥성과 창조성 신장

제3장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설계 및 수업지도안

제1절 효과적인 음악수업 설계

효과적인 음악수업은 '모든 음악활동은 학생의 음악적 이해와 음악적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24]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는 활동만으로 이루어진 수업보다는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음악수업 설계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5]

첫째, 학생들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여 출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파악하는 것이 음악수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학생들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흥미 있어 하는 것과 흥미 없어 하는 것 등을 교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다음의 수업 계획의 시작점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음악수업에서 기본 방향은 그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음악적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수업에서 개념을 너무 많이 다루고자 하면 산만한 수업이 되기 쉽다. 따라서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몇 가지의 음악적 개념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 수업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단순히 제재곡을 유창하게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제재곡을 잘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곡을 통하여 음악 개념이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음악활동을 통하여 제반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

24) 석문주,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p.195.
25) 석문주, 상계서, pp.195-198.

을지에 대한 목표를 서술해야 한다.

넷째,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활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언어의 설명만이 아닌 실제적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언어로는 음악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락에 대한 정의를 외워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음악에 있는 음악적 개념을 들어봐야 그것을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화 전에 제공하는 경험의 가치는 언어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음악을 배우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

여섯째, 학습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학습내용이 정해졌을 경우,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교수(teaching)를 더욱 확실하고 효율적이 되게 할 것이다.

일곱째, 수업의 내용과 흐름에 적절한 학습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적절한 학습자료는 학생들이 더욱 수업에 적극적으로 차여하도록 도와주고, 수업내용을 잘 습득하게해 줄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습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시간은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떤 음악적 기능은 긴 시간의 수업보다는 여러 번의 짧은 수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된다. 즉, 고쳐질 때까지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음악활동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학생의 나이, 흥미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홉째, 부분의 평가로써 전체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수업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부의 평가로 전체의 수준을 가늠하고, 후속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결과는 다음 단계와 활동을 계획하고, 가르친 내용을 강화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혹은 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교수-학습계획은 하나의 순환주기이다. 각 수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과 뒤이어 하게 될 그 무엇과 항상 연관이 되어야 한

다. 또한 교사가 실제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단위수업계획, 교과서 및 지도서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획하여야 한다.[26]

제2절 현대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1. 달크로즈 음악 수업지도안

달크로즈 교수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감각들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과 앎과 사고의 능력,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들을 발달, 개선하는 것이며, 이런 모든 능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운동 감각적 지각'이라고 본다. 이러한 운동 감각적 지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목적이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달크로즈 교수법은 보이지 않는 소리(invisible sound)를 보이는 소리(visible sound)로 소리모방(phonomimesis)을 통하여 연계시킬 수 있게 훈련하는 과정이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된 원리로 하고 있다.[27]

이러한 달크로즈 교수법을 중심으로 다음의 수업지도안에서는 음악과 신체동작을 결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 숨기기를 통하여 쉼표의 개념을 익히게 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에 의한 예시 수업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

26) 석문주, 상계서, pp.195-198.
27) 석문주, 상계서, p.88.

<표 7> 달크로즈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단원	즐거운 봄	차시	1/2	대상	7학년
학습 목표	1. 쉼표의 개념을 익히고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신체 표현으로 일정박을 치며 노래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분)	○ 동기유발: 노래에 맞추어 걷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이 반주해 주는 음악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걷는다. ○ 학습 목표 확인	피아노	○교사의 명령어는 박자에 맞추어서 음악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재곡은 3박자 노래이므로 '하나-시-작'하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전개 (35분)	○ 활동 1 : 노래 따라 익히기 - 교사가 한 단씩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은 따라 부른다. - 학생들이 노래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반복하여 연습한다. ○ 활동 2 : 노래 숨기기 - 교사의 손 신호에 따라 학생들은 떠들다가 조용히 하다가를 반복한다. - 제재곡을 노래할 때, 한 마디는 소리 내어 노래 부르고, 한 마디는 마음속으로 노래한다.	변형악보	

	- 학생들이 잘 부르지 못할 때에는 속으로 부르는 부분이 지워진 악보를 제시하고, 잘 부르게 되면 모든 마디가 있는 악보를 제시하며 속으로 부르는 마디를 바꾸어서 활동한다. - 교사가 연주하는 제재곡에 맞춰서 노래하며 걷다가 음악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박수를 치며 쉼표의 개념을 익힌다. ○ 활동 3 : 일정박을 치며 노래 부르기 - 2박 계열로 일정박을 치며 노래 부른다. - 마디의 첫 박을 강박으로 하여 발을 구르며, 둘째 박을 약박으로 하여 손뼉을 치면서 2박자의 기본 개념을 익히며 노래 부른다. ○ 활동 4 : 2/4박자 일정박에 맞춰 에그쉐이크 전달하기 - 모둠을 이루어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친다. 왼손을 아래에 놓고 자기 손뼉과 옆 사람 손뼉을 번갈아 친다. - 충분히 연습하면 자기 손뼉을 칠 때 에그쉐이크를 잡아 다른 사람의 손뼉을 칠 때 넘겨주며 에그쉐이크를 전한다. - 제재곡을 일정박으로 에그쉐이크를 전하며 노래 부른다.	에그쉐이크	
정리 ***(5분)***	○ 학습정리 - 신체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뒤의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한다.		○ 자연스러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준비물을 예고한다.		도록 한다.

2. 코다이 음악 수업지도안

코다이는 음악수업 방법에서의 주요 목적은 독보력 신장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독보력이 없는 문맹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음악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음악적으로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소요했을 때만이 풍요한 음악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의 음악수업 방법의 주요 골격이라고 본다.[28] 또한 그는 계명창법을 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들고 있어 시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코다이의 독보력, 기보력의 강조는 음악적 신장과 아울러 이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음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은 음악적 문맹으로 생각하고 가창 훈련을 중심으로 독보력 지도와 계명창법, 손 기호, 신체 표현의 독특하고 다양한 지도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코다이 교수법을 중심으로 다음의 수업지도안에서는 코다이식 기보법으로 된 악보로 리듬음절 읽기를 하여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 기호를 사용하여 계명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다이의 교수법 상 고정도법의 지도보다는 이동도법의 지도로 효과적인 음정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다이 교수법에 의한 예시 수업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28) Lois Choksy, "The Koda'ly Method," (Englewood, N.J : Prentice-Hall, Inc, 1974), pp.8-9.

<표 8> 코다이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단원	즐거운 봄	차시	1/2	대상	7학년
학습 목표	1. 코다이 식으로 기보된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를 수 있다. 2. 손 기호를 사용하여 계이름을 노래 부를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분)	○동기유발 - 봄에 대한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즐거운 봄'의 가사를 살펴 본다 . ○ 학습 목표 확인		
전개 (35분)	○ 활동 1 : 리듬 익히기 - 교사는 제재곡을 코다이식 기보법으로 된 악보로 제시한다. - 코다이 식으로 기보된 악보를 음악 음절로 읽고 리듬치기를 한다. (손뼉 치기, 연필 치기) - 제자리걸음하며 박자의 강약을 차별하여 리듬치기를 하고 리듬말을 한다. - 학생들은 2모둠으로 나누어서 각 각 다른 리듬치기를 연습한 후, 함께 연주해 본다. (1모둠-손뼉 치기, 2모둠-연필 치기)	리듬카드, 연필	

	○ 활동 2 : 손 기호와 함께 계명창하기 - 먼저 음정 없이 계이름을 읽어본 후, 한 단씩 선율을 듣고 계이름을 붙여가며 계명창을 익힌다. - 교사는 손 기호를 제시하고, 손 기호와 함께 계이름을 읽어본다. - 가락의 움직임을 손기호로 나타내고 노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손 기호를 연습하여 제재곡을 손 기호를 사용하여 이동도법으로 계명창 할 수 있도록 숙지한다. - 손 기호와 함께 이동도법으로 계명창한다.	피아노, 손 기호 도표	○손 기호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계명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5분)*	○ 학습 정리 - 코다이식 기보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발표해 본다. - 손 기호를 숙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준비물을 예고한다.		○자연스러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오르프 음악 수업지도안

오르프 교수법의 특징은 아동의 언어와 신체동작을 음악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있다. 오르프는 언어, 신체동작, 음악의 통합을 하나의 음악적 카테고리로 정하고 이것을 '원초적 음악(Elemental Music)'으로 개념화하였다.[29]

이러한 오르프 교수법을 중심으로 다음의 수업지도안에서는 리듬을 언어로 표현해보고 이를 손뼉 치기, 무릎 치기, 발 구르기 등의 신체로 표현한 뒤 리듬타악기로 연주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면서 리듬을 체득하게 하였다. 또한 즉흥 연주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음악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여 창조적인 음악성을 고취시키게 하였다.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예시 수업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9>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1

단원	즐거운 봄	**차시**	2/3	**대상**	7학년
학습 목표	1. 말리듬 오스티나토로 연주할 수 있다. 2. 신체 타악기를 만들어 합주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분)	○ 동기유발 - '즐거운 봄'을 각자 자유로운 신체 활동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른다.			피아노	

29) 석문주, 전게서, p.103.

	○ 학습 목표 확인		
전개 (35분)	○ 활동 1 : 말리듬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 가사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말하고, 선택한 가사에 리듬을 붙인다.(3성부로) - 제시된 말리듬을 모둠별로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오스티나토 연주를 한다. ○ 활동 2 : 신체 타악기 합주 - 리듬에 어울리는 신체 타악기를 생각해본다.(발 구르기, 손뼉 치기, 무릎 치기, 손 모아 치기, 손등 치기, 손가락 튕기기, 주먹 쥐고 책상 치기, 입으로 똑딱하기 등) - 정해진 신체 타악기를 모둠별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신체타악기를 합주한다.		○ 오스티나토는 학생들과 같이 만드는 것이 좋으나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가 제공할 수 있다.
정리 (5분)	○ 학습 정리 - 오스티나토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 화음의 어울림과 안어울림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본다.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준비물을 예고한다.		○ 자연스러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10>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수업지도안 2

단원	즐거운 봄	차시	3/3	대상	7학년
학습 목표	1. 리듬악기로 합주할 수 있다. 2. 말리듬, 신체타악기, 리듬악기를 혼합하여 즉흥 연주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분)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배운 말리듬 오스티나토와 신체 타악기 연주를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한 번씩 자유롭게 상기해 본다. ○ 동기유발 - '즐거운 봄'을 각자 자유로운 신체 타악기로 표현하며 노래 부른다. ○ 학습 목표 확인	피아노	
전개 (35분)	○ 활동 1 : 리듬악기 합주하기 - 각 리듬에 어울리는 악기를 배치하고 악기별로 연습한다. - 다른 사람의 연주를 잘 들으며 합주한다. ○ 활동 2 : 즉흥 연주하기	피아노, 리듬악기, 큰북, 작은북, 멜로디언, 실로폰	

	- 4마디를 정하여 앞의 두 마디는 다함께 연주한 후, 뒤의 두 마디는 각자 즉흥적으로 연주한다. - 모둠별로 돌아가며 리듬 악기로 즉흥 연주한다. (다같이-즉흥연주(모둠1)-다같이-즉흥연주(모둠2)-다같이-) - 말리듬, 신체타악기, 리듬악기를 혼합하여 즉흥연주 해본다.		
정리 ***(5분)***	○ 학습 정리 - 악기의 어울림과 안어울림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본다. - 즉흥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준비물을 예고한다.		○ 자연스러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장 결 론

7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와 같이 실제 수업을 제공받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 관심은 물론 학생들의 개인 환경과 성별까지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초석은 시대와 발맞추어 나가는 학교 단위의 연구 활성화와 늘 새롭게 배우며 가르치는 음악 교사의 노력일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음악 교수법의 중심이 되고 또 널리 알려진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음악 교수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기초로 효과적으로 접근된 음악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으로 접근된 음악수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의 여러 교과목들과 유연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교과 간, 교육내용 간 통합교육은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교과담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접근된 음악수업을 위해서는 또한 음악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 음악실은 피아노와 낡은 책상과 의자로 채워진 빈약한 환경이다. 배우고 싶은 악기는 언제나 대여해주고, 음악을 감상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며 PC방보다 더 가고 싶은 내적·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

현대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해 동기 유발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즉 억지스럽게 시간 떼우기 식, 공부와는 별

무관하다는 음악을 경시하는 태도를 적극적 참여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도 긍정적 자극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음악수업은 함께 움직이고, 뛰고, 노래하고, 리듬 치며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대화법과 자기 표현법도 배울 수 있는 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연주(2007).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리듬학습 이론에 기초한 리듬교육 지도 방안.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경북대학교.

강인애(2006). 디지털 시대의 학습 테크놀로지. 서울 : 문음사.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과학교육사.

김영연 외(2006). 음악교육의 지평 II. 서울 : 도서출판 신정.

김영이(2001). 달크로즈와 오르프의 리듬지도 방법의 효과 비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김용희(2002).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9집. 인천 : 인천교육대학교.

김태봉(2008). 고등학생의 음악 수업 기피요인 분석.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경원대학교.

문연경(2007). 음악 두뇌. 서울 : 눈과마음.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2005). Dictionary of Music. 서울 : 도서출판 음악세계.

석문주(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소미화(2002). 현대사회의 소외로 인한 주체성 상실로서의 자해.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산업대학교.

송상경(1987). Carl Orff의 Schulwerk fur Kinder에 관한 고찰.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달크로즈 협회. http://www.eurty.com, 2008년 7월 21일 검색.

안재신(2003). 유아음악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오숙경(1973). 오르프와 코다이 음악교육 이념의 비교 고찰. 음악교육연구 제1집, 한국음악교육학회.

윤명원 외(2006).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서울 : (주)지학사.

윤영랑(2007). 달크로즈 교육방법을 토대로 한 음악극 학습지도안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학교.

이경언(2004).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중등학교 음악과 (연구보고 RRC 2004-2-9). 서울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이경인(2004). 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기악수업의 효율적 방안.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이선희(2001). 초등학교 코다이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이일범(2006).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의 음악이론과 교수법의 비교분석.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전인숙(2000). 중학교 가창교육을 위한 창의적 시창 지도방안.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청주 : 청주대학교.

정경화(2007). 코다이・오르프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수업지도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홍기(2004). 코다이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조효임 외(1999).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사.

최시원(1986). 미국 음악교육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한국 오르프 슐베르크 협회. http://www.korff.or.kr, 2008년 8월 1일 검색.

한국 오르프 음악교육 연구소. http://www.orff.org, 2008년 8월 1일 검색.

한국 코다이 협회. http://www.kodaly.or.kr, 2008년 8월 3일 검색.

한세대학교 달크로즈 과정. http://www.dalcroz.co.kr/, 2008년 7월 23일 검색.

홍성애(2007). 현대 음악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Choksy, Lois(1981). *The Kodaly Metho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musical*

learning. NJ: Prentice-Hall, Inc.

Wuytack, J. (1994). 오르프 슐베르크 테크닉의 이해(*Technique of Orff-Schulwerk Pedagogy*). 김영전 편역(2008), 파주 : 도서출판 음악세계.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68082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 : 이 은 경 한문 : 李 恩 景 영문 : Lee eun-kyu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74-10				
연락처	E-MAIL : ekfinger@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현대 음악 교수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등 음악수업 연구				
	영문 : The effective secondary music class study using contemporary music pedagogi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

2009년 2월 일

저작자: 이 은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